

# 고독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융복합 콘텐츠 탐색 :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지원\*, 박은수\*\*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e-mail:jwjun@syu.ac.kr

## Exploring convergence cont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Lonely Death Vulnerable Group: Focusing on persona scenario

Ji-Won, Jun\*, Eun-Soo, Park\*\*

\*Construction Management and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Sahmyook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e, Sahmyook University

### 요약

전 세계적으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연평균 8% 가량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되며,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심화로 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고독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취약한 주거환경이 고독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에는 주택 구조, 주변 인프라 등 유형적 요소와 지역사회, 사회연결망 등 무형적 요소가 있어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고독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내 융복합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와 정책 등 구체적인 예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통해 고독사 취약계층의 실제 삶의 맥락을 파악하고, 주거환경 이슈와 니즈를 발견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연결 강화, 정신건강 증진 등 실효성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고독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김수진, 류주연, 2022). 선행연구(최윤주 외, 2023; 정은주, 정봉현, 2017; Lamanna et al., 2020)에 따르면 취약한 주거환경이 고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변 인프라와 접근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문제 해결이 고독사 예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주거환경은 내부 구조와 기능, 교통 근접성, 주변 시설 등 유형적 특성과 사회적, 감성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사회 연결망 등 무형적 특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영향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통해 고독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내 융복합적 요소를 도출하여 고독사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문제점 및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독사 주거복지와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 2. 고독사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개념적 접근

### 2.1 고독사의 정의

고독사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뒤 사망이 확인되는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한국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22).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선은애, 2022; 박향미 외, 2021)와 코로나(Nelson-Becker, Victor, 2020)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심화 등으로 고독사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독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숙자 외, 2021; 송인주, 모은정, 2021; 류주연, 김수진, 성기옥, 2022). 하지만 사후에 발견된다는 현상의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거환경은 사회적 연결성 형성과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1인 가구에서 주택 불만족은

후반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학문적, 법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한 후 일정 시간 후에 타인에 의해 발견되는 죽음'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노인 고독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단절된 홀로 사는 자의 홀로 죽음'이후 일정 기간에 발견' 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음(최승호 외, 2017)', '주거지에서의 죽음(강기철 · 손종윤, 2017; 김종백, 2018)'을 고독사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 2.2 고독사 취약계층 유형별 영향요인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취약계층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중장년층(58.6%)이였으며 노년층이 그 뒤를 이었다(보건복지부, 2022). 한편, 최윤주 외(2023)의 연구에서 약 10년간 '고독사', '고립사', '무연사' 등 고독사와 관련된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고독사 사례 대상자는 노인이 40%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39.4%), 청년(17.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이후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부작용으로 인해 청년층의 사례가 급증한것으로 해석된다. 고독사는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부족하다. 대부분 고독사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원인을 도출했으며, 최근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고독사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김수영 외, 2023; 박은수 외, 2023; 최윤주 외, 2023). 선행연구(Yumiko Hashizume et al., 2022; Toyama&Poudyal, 2021; 김수영 외, 2023; 박은수 외, 2023; 배은경 외, 2023; 최윤주 외, 2023)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영향요인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독사 취약계층 유형별 영향요인

유형	영향요인
청년층	-직장,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독립을 위한 1인거주 -사회적 체념 -자살충동
중장년층	-실직/ 은퇴/ 조기퇴직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단절 -간질환,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관계기피 -알콜의존
노년층	-고혈압/위질환/뇌출혈/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 및 신체 질병 관련 스트레스 -사별로 인한 1인 거주 -경제적 빈곤 -차상위계층
공통	-1인 가구 -경제적 빈곤 -사회관계 단절

## 2.3 주거환경 관점 고독사 원인

주거환경이란 주거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성진옥, 남진, 2019). 주거환경 요소는 물리적 변수와 환경변수(최윤아, 송병하, 2006), 주택환경과 주변환경(박남희, 김준영, 2004), 주택내부, 주택외부, 근린환경(구기환, 김세용, 2003)로 구분된다. 주거 불안정의 심화는 소통단절, 사회적 고립, 우울증으로 연결되어 고독사로 이어진다.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아진다. 최윤주 외(2023)의 연구에서 보도된 신문기사의 고독사 사례에서 발견장소는 대다수가 본인의 주거지였으며, 거주지는 노년과 중장년의 경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청년의 경우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반지하, 옥탑방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김은지, 전희정, 2023)에서 주거비과부담은 중장년층과 노년의 정신건강수준을 악화시켰고, 최저주거기준미달은 모든 세대의 정신건강 수준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주거비과부담의 영향력보다 컸다.

## 2.4 고독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융복합 콘텐츠

인간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공간구성, 관습,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 현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이 어우러져 총체적이고 복합적이다. 비슷한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 가지는 의미는 물리적 환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변화 및 생활 행위에 따른 공간의 변위(變位)적 요소에 의해 다양하고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독사 위험의 영향요인을 주거환경 관점에서 융복합 콘텐츠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융복합 콘텐츠는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할 것이다. 주거환경은 안전시설, 커뮤니티시설, 공간구성 등 유형요인과 생활서비스, 지역특성, 사회적 소속감 등의 무형적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종합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건강 관리 서비스,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설계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회적 연결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융복합적 접근은 주거환경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고립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페르소나 시나리오

페르소나 시나리오 방법은 가상의 인물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하위 그룹의 특징과 행동을 보여주고(Maness et al., 2008) 그들의 생활 패턴, 필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사용자 그룹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Sundt, Davis, 2017). 초기 페르소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Cooper, 1999).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기본 구성요소는 이름, 나이, 성별, 개별환경은 동일하게 제시된다. 시나리오는 정의된 페르소나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주거 관련 상황과 맥락을 설정하고, 페르소나의 일상생활, 주거환경 이용 패턴, 주거 문제 발생 상황 등을 구체화한다.

####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고독사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페르소나 시나리오 연구방법을 진행하고자 한다. 고독사 취약계층 유형별 페르소나 시나리오를 통해 주거환경 이슈와 니즈를 분석하고 다양한 고독사 영향 유무형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페르소나 기반 가상 시나리오는 고독사 대상층별 주거환경 이슈 및 니즈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절차는 <표 2>와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독사 취약계층의 유형별 영향요인과 특성을 구체화하여 페르소나를 개발한다. 둘째, 각 페르소나의 주거생활 가상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셋째,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주거환경 이슈와 주거 니즈를 파악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 유무형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범주화한다.

[표 2] 연구절차

단계	연구절차	상세내용
1	페르소나 개발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독사 취약계층 페르소나 유형 구체화 - 페르소나 구성변수 : 이름, 연령, 성별, 직업, 수입, 가족상황, 건강상태, 주거형태, 상황 특성
2	시나리오 개발	- 각 페르소나 유형별 주거환경, 주거공간,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주거생활 가상 시나리오 작성
3	주거환경 이슈 및 니즈 파악	-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고독사 취약계층 유형별 주거환경 이슈 및 니즈 파악
4	융복합 콘텐츠 범주화	- 고독사 위험 유무형 영향요인 도출 - 영향요인 기반 융복합 콘텐츠 범주화

### 4. 결론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고독사 취약계층의 유형별 상황을 파악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사회적 연결성 강화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주거공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융복합적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독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융복합 콘텐츠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페르소나 시나리오 기법을 제시했다. 고독사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실제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페르소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고독사 취약계층의 가상인물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거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층 분석함으로써 주거환경 내 핵심 이슈를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주거환경의 융복합 콘텐츠를 범주화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복지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0078)

참고문헌

[1] Cooper, A. (1999). The inmates are running the asylum (pp. 17-17). Vieweg+ Teubner Verlag.

- [2] Hashizume, Y., Ishigami, A., Ishida, Y., Nosaka, M., Kuninaka, Y., Yamamoto, H., ... Kondo, T. (2022). A retrospective study on solitary deaths (kodoku-shi) from the aspects of forensic and social medicine.
- [3] Lamanna, J., Scott, E. Y., Edwards, H. S., Chamberlain, M. D., Dryden, M. D., Peng, J., ... & Wheeler, A. R. (2020). Digital microfluidic isolation of single cells for-Omics. *Nature Communications*, 11(1), 5632.
- [4] Maness, J. M., Miaskiewicz, T., Sumner, T. (2008). Using personas to understand the needs and goals of institutional repository users. *D-Lib Magazine*, 14(9/10), 1082-9873.
- [5] Nelson-Becker, H., Victor, C. (2020). Dying alone and lonely dying: Media discourse and pandemic conditions. *Journal of Aging Studies*, 55, 100878.
- [6] Sundt, A., Davis, E. (2017). User personas as a shared lens for library UX. *Weave: Journal of Library User Experience*, 1(6).
- [7] Toyama, S., Poudyal, H. (2021). Prevalence of kodokushi (solitary death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SN Social Sciences*, 1(7), 163.
- [8] 강기철, 손종윤. (2017).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본문화연구*, 61, 5-25.
- [9] 고숙자, 이아영, 황남희, 장익현, 안영, & 정영호.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 [10] 구기환, 김세용. (2023). 사회적 혼합단지의 주거환경요인이 임대 입주민의 소셜믹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택도시연구*, 13(2), 53-74.
- [11] 김수영, 장지현, 김현옥. (2023). 현대사회의 고독한 삶과 죽음-고독사 언론보도에 관한 비정형빅데이터 분석 중심. *한국사회복지학*, 75(3), 421-452.
- [12] 김수진, 류주연. (2023). 고독생 요인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8(3), 59-81.
- [13] 김은지, 전희정. (2023).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및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6(2), 23-45.
- [14] 김종백. (2018). 맹자(孟子)를 통해 본 고독사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93), 155-178.
- [15] 류주연, 성기욱,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16] 박남희, 김준영. (2004). 분당신도시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6), 27-35.
- [17] 박은수, 이상엽, 이행우, 신현지, 김지은.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공간적 관점의 고독사와 주거환경의 영향요인에 관한 융복합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1(1), 137-154.
- [18] 배은경, 정순돌, 유재언, 이하진. (20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2), 169-191.
- [19] 선은애. (202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지공법연구*, 297-316.
- [20] 성진욱, 남진. (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토계획*, 54(3), 49-62.
- [21] 송인주, 모은정. (2021).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22] 정은주, 정봉현. (2017). 고립사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도시 공간적 접근. *도시행정학보*, 30(2), 131-152.
- [23] 최승호, 조병철, 전승환. (2017).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기 결정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연구*, 62, 403-436.
- [24] 최윤아, 송병하. (2006).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소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11), 115-124.
- [25] 최윤주, 전예빈, 신예림, 이수비. (2023). 신문에 보도된 고독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2년~2022년 기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1), 117-144.